

“쏘나타 맞아?” 잘 빠진 디자인에 美서 극찬 잇따라

현대차 ‘신형 쏘나타’ 흥행조짐 해외 전문매체 디자인에 찬사 “디자인으로 거대한 도약 이뤄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860만대 넘게 팔린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세단 ‘쏘나타’가 출시 전부터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가 5년 만에 선보이는 8세대 신형 쏘나타의 디자인이 지난 6일 공개된 이후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들은 신형 쏘나타의 바뀐 엔진과 각종 신기술 적용 부분보다 디자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형 쏘나타 이미지가 공개된 뒤 여론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들이 신형 쏘나타 디자인에 대해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신형 쏘나타는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현대차 신형 쏘나타.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세단 최초로 적용해 스포티한 중형 세단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사항과 신규 엔진 등으로 차량의 상품성도 높였다.

신형 쏘나타의 외형은 기존 모델(뉴라이즈)보다는 전고가 30mm 낮아지며 휠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늘어나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춘 동시에 등급 최대 규모

의 제원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주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인 모터트렌드는 “현대 쏘나타가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안팎으로 성숙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는 기존 모델보다 더 매력적이고 진보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현대차가 신형 쏘나타의 디자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유력 자동차 매체인 카엔드라

이버 역시 신형 쏘나타에 대해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다”며 “지붕이 뒤쪽으로 매끈하게 내려붙은 패스트백 스타일이 가장 눈에 띈다”고 밝혔다.

신형 쏘나타의 외관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주간주행등(DRL)이 탑재된 헤드램프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가이드는 신형 쏘나타의 외관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바로 DRL을 꼽았다.

유명 자동차매체인 잘롭니는 “낮고 넓어진 데다 길어져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신형 쏘나타를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몇몇 메이커가 세단을 포기하고 있는 시기지만 현대차가 여전히 세단에 공들이는 걸 보는 게 즐겁다”고 덧붙였다.

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블로그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개선했다. 특히 독특한 4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끌린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

사와 페이스북 링크 등에는 14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은 사이트별로 60~90%로 집계됐다.

한편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는 스마트 폰과 연동되는 개인화 프로필을 탑재해 나만의 차로 설정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탑재된다. 운전자는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화면 내 사용자 선택을 통해 차량 설정이 자동으로 개인에게 맞춰지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디지털 키로 문을 열 수 있다.

현대 디지털 키는 스마트키가 없어도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차량 출입과 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동승석 릴렉스 컴포트 시트,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등의 기술이 신규 탑재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가성비 높은 2020년형 K5 출시

소비자 선호사양 기본적용 확대 안전성 높이고 가격인상 최소화

기아자동차가 12일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인 2020년형 K5(사진)를 출시했다.

2020년형 K5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소비자 선호사양의 기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합리적 사양 조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선택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주력 상품인 2.0 가솔린 모델에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차량 전방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화했다. 정차할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정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오토홀드’ 기능을 포함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도 주력 트림에 기본화해 주행 편의성을 높였다.

100만원 이상의 추가 비

용이 들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드라이브 와이즈’의 주요 기술을 기본 모델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44만원의 추가 비용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 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내비게이션 적용 시), 보행자 충돌방지 보조(FCA) 등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1.7 디젤 모델,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상위 트림에 ▲차량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어시스트 등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미래 첨단기술 대거 공개

‘2019 서울모터쇼’ 참가 부품 업체 중 가장 큰 규모 부스 마련 별도 공간서 주니어 공학교실도 운영

현대모비스가 오는 29일부터 열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2019 서울모터쇼’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를 조명하다’라는 주제로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부품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가상공간 터치,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 미래 자율주행차 안에서 어떤 편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라이팅 기술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자율주행하는 콘셉트카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시스템



서울모터쇼 현대모비스관 조감도.

도 전시한다.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RSPA),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AADB) 등 양산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핵심부품들도 공개한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주말에 전시관 2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서울모터쇼에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초 과학 기술을 가르쳐주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개최한다.

/양성운 기자

게임회사 NO... 넷마블, AI 기술기업 도약

콜롬버스 서비스 적용 영역 확대 구글 등 대외 협력·투자도 강화

게임 업체 넷마블이 PC와 모바일 게임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능형 게임 기반의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는 ‘넷마블 3.0’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2014년부터 게임 운영 노하우의 인공지능화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담 조직인 NARC(넷마블 AI레블루션센터)를 신설하고, 미국 IBM 왓슨 연구소 출신 이준영 박사를 센터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넷마블 3.0 지능형 게임은 이용자 패턴을 학습해 지속적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한 기초 기술인 ‘콜롬버스’는 넷마블이 보유한 전 세계 약 6800만 MAU(한 달 동안 게임에 접속



이준영 NARC 센터장. /넷마블

한 이용자수)를 분석해 최적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안한다. 광고 사거나 비정상 이용자 탐지에도 적용된다. 콜롬버스 기술은 현재 넷마블의 ‘리니지2 레블루션’, ‘블레이드&소울 레블루션’, ‘마블 퓨처 파이트’ 등 타이틀에 탑재돼 있다.

게임 개발과 플레이를 돕는 AI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넷마블의 ‘맞춤형 인공지능 플레이어’는 이용자의 숙련도와 이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플레이 동기를

부여하는 지능형 NPC, 맞춤형 난이도의 인공지능 대전 상대가 대표적이다.

‘게임 내 밸런스 검증 도구’와 ‘테스트 자동화 기술’은 개발자들의 직관에 의존했던 민감하고 복잡한 작업을 고도화한다. 데이터 입력이나 테스트 등을 체계화·시각화하고 자동화해 정확도와 속도,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실제 버그 수정 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리그레션 테스트’에 도입돼 최대 40%의 속도 개선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넷마블은 AI 기술을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마젤란 기술을 올 하반기 출시 게임부터 본격 적용한다. 콜롬버스 서비스 적용 영역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대외 협력과 투자도 강화한다. 구글, AWS와의 협력해 AI 기술 구현과 확대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벤처 캐피털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대, 서울대와 진행 중인 산학 연구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위아, 신형 금형공작기계 한자리에

‘인터몰드 코리아 2019’ 참가 고성능 기종 ‘FX시리즈’ 선보

현대위아가 국내 최대 금형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금형 공작기계를 대거 공개한다.

현대위아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금형전시회 ‘인터몰드 코리아 2019’에서 신형 금형 공작기계 5종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몰드는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3대 금형 전시회 중 하나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더 진보한 금형 세대’라는 주제로, 약 765㎡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10종의 공작기계와 공장 자동화 라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이 전시된다. 금형은 특정 모양을 대량으로 찍어낼 때 쓰는 금속 거푸집으로, 공작기계의 가공 정도에 따라 금형에서 만



현대위아가 12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세계 3대 금형 전시회 ‘INTERMOLD 2019’에서 차세대 금형 공작기계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위아

들어지는 제품의 질이 달라진다.

현대위아는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기종인 XF시리즈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XF시리즈는 독일 뮌헨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설계부터 시제작까지의 연구 전 과정을 총괄해 만들었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美서부지역에 A350 투입 시애틀 등 3개 도시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차세대 항공기 A350으로 미국 서부 3개 도시 운항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 차세대 항공기 A350을 미국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3개 도시에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기종인 A350은 기존 중대형 항공기 대비 ▲확대된 기내 공간 ▲뛰어난 연료 효율성 ▲소음과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성 ▲기내 기압, 습도, 조명 개선으로 쾌적한 비행 환경을 제공한다. 또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기내 무료 인터넷, 휴대전화 로밍서비스와 함께 ▲앞뒤 간격이 넓어진 ‘이코노미스 마티움’ 좌석을 제공해 고객들의 편의사양을 높였다.

/경연우 기자 yw964@